

Someone wrote an article entitled, “*How to Be Miserable.*” It read: “Think about yourself. Talk about yourself. Use ‘I’ as often as possible. Mirror yourself continually in the opinion of others. Listen greedily to what people say about you. Expect to be appreciated. Be suspicious. Be jealous and envious. Be sensitive to insults. Never forgive a criticism. Trust nobody but yourself. Insist on consideration and respect. Demand agreement with your own views on everything. Sulk when people are not grateful to you for favours shown to them. Never forget a service you have rendered. Avoid your duties if you can. Do as little as possible for others.” Those words are not Christian. But they do reflect much of what people believe these days.

어떤 사람이 “어떻게 비참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라. 너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가능한한 자주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비취보라.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해 뭐라고 하는지 열정적으로 들어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의심하라. 시기하고 부러워하라. 모욕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결코 비판을 용서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외에는 아무도 믿지마라. 심사숙고와 존중에 집착하라. 모든 것에 당신만의 관점에 동의하기를 요구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당신의 호의에 감사하지 않을때 부루퉁해지라. 당신이 행한 봉사를 절대 잊지 말라. 당신의 임무를 될수 있으면 회피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적게 하라” 등등 입니다. 그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We live in is a ‘me first’ society.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focus of life has largely been on us rather than on others. We’re self-centred. Now that’s a sweeping statement and you may like to disagree. Yet it’s summed up in two popular song titles, ‘*What about Me?*’ and ‘*I did it my way.*’

Another summary of our self-centredness is the ‘selfie’. Remember the selfie, that picture you take of yourself? 93 million selfies are taken every day. Australians are the world’s most prolific takers of selfies. Furthermore, Samsung reports that 36% of people will alter their selfie. I guess that they do that to make themselves look better. Clearly, some people are very busy taking them. Perhaps you and I don’t take many. So, some people will be very busy.

Am I exaggerating when I speak about our self-centredness? Well, these days the focus is on what we need to do (or have) in order to be satisfied, valued and appreciated. Sadly, some people find satisfaction in their possessions. Some find it through having power. They *must* be the one whom others look up to. “Do it my way” they cry. Others find fulfilment in sport or business. And, if the truth is known, we can feed other people’s egos by giving them hero-worship. Is there an antidote to this viral self-centeredness? Yes there is. The antidote, the answer to being self-centred is to be Christ-centred. And so I’m glad to see the titles of many recent Christian books: *Christ-centred Preaching*; *Christ-centred Counselling* and *Christ-centred Worship*. There’s even a website, *Christ-centred Gamer*.

우리는 “나 우선”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래로 삶의 초점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것을 포괄하는 진술이지만 여러분은 동의하고 싶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두가지 대중가요의 제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 “내 식대로 했다”

제가 자기 중심주의에 관해 과장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글썄요, 오늘날은 만족을 위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물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가짐으로 만족을 찾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내 식으로 하라”고 외칩니다. 다른 이들은 스포츠나 사업에서 성취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일 진실이 알려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웅으로 숭배 함으로써 그들의 자아 도취를 부추깁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자기 중심주의의 해독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해독제, 자기 중심에 대한 해답은 예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많은 기독교 서적의 제목을 볼때 매우 기쁩니다: “예수 중심의 설교” “예수 중심의 카운셀링” 그리고 “예수 중심의 예배” 심지어는 “예수 중심의 놀이”라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In Colossians 3:1-11, the Apostle Paul applies the gospel cure in this way: Focus on Christ (3:1-4), and take off the old (sinful) humanity and put on the new (3:5-11). We've previously considered 3:1-4. So, our focus will move on to 3:5-11. First, put to death sinful behaviour. Second, rid yourself of sinful speech. And third, do not lie to one another. (Sadly, today, we'll only have time for 3:5-8.)

Why can Paul give these commands? Well, in 3:1-4 Paul tells Christians who we are in the sight of God.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골로새서 3:1-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복음 치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중심 두기 (3:1-4), 옛(죄 많은) 자아를 벗고 새것을 입기 (3:5-11). 우리는 전에 3장 1-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3장 5-11절로 옮겨 갈 것입니다. 우선, 죄악이 가득한 행동을 죽이라. 둘째로 죄악이 가득한 말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셋째는 서로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애석하게도 우리는 3:5-8절을 위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글썄요, 3: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Colossians is filled with pictures of our new relationship with God. Here are a few more verses: 2:13a,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ave us all our sins...*** 2:20, ***Since you died with Christ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why, as though you still belonged to it, do you submit to its rules...?*** And 3:3,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These are amazing words of grace from our God.

Do you get the picture? Can you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You have died with Christ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and raised with him through faith in the power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Colossians 2:12) Christian friends, your life is not your own. You're not free to sin. But, you are free to live for Christ. And that's real freedom. Before you received Christ, you were a slave to sin. You could not save yourself. For, salvation is God's work, not yours. But now, you're free to live for God's glory, not yours.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의 그림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13 “너희가 너희의 범죄로 죽었을때...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2: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3장 3절에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십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세례로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12). 크리스천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위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자유합니다.

I cannot stress that enough. We contribute nothing towards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Listen to Ephesians 2:8, 9,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Yet we struggle with this. We want to contribute our good deeds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Yet, that's the beauty of the Christian faith. It's all of God's mercy and grace. It's not what you and I have done for God. Instead, it's what God has done

for us. Now, in a new and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e want to live for Him. And there's even greater motivation for us to do so. Listen again to 3:4,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Christ will come again. When? We do not know. But we're to be ready for that great day.

제가 이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여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8-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고분분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선한 행위로 기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롭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는 더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Well then, how does Christ's return motivate us? Christian, it's not the fear of punishment. 3:6 does speak of God's wrath: **the wrath of God is coming.** But Christ has borne God's wrath on the cross. Ephesians 2:3b-5,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deserving of wrath.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Here is the glory of the gospel. Outside of Christ we're dead, dead in our sins (Ephesians 2:1). Now, united to Christ by faith we're made alive and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And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1 John 3:2). Our desire, our motivation in godly Christian living is to please God and obey Him. And we live that way in order that we might become more like our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유발합니까? 크리스천에게 그 동기는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3장 6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습니다. 에베소서 2:3-5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의 바깥에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죄로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1).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늘의 높은 곳에 그와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때 우리가 그와 같아질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2). 거룩한 크리스천의 인생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In Colossians 3:5-10 the Apostle Paul writes to all who have been converted. He doesn't expect that we'll have practiced all of these sins. But he knows that some of us have committed them in the past. And he knows that we're tempted by those sins we wish to leave behind. And so Paul wants to root out all sin, for the sake of Christ and with the knowledge that Christ will return for us.

God's word in Colossians guides us. 3:5,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As one commentator notes, this means shifting your personality from self to Christ.

With the word **death**, Paul uses very strong language. It's a word (in the original language) that gives us the English word *necropolis*. (A necropolis is a tomb, a 'city of the dead'.) It's also used (in English) to speak of *necrotizing* bacteria. They're also called 'flesh-eating bacteria'. And so we speak of *necrosis*, dead flesh.

Those English words vividly describe what Paul has in mind. He's not just giving us good advice. He's saying that we must kill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Yes. It's something we must do. But not to be saved! Not to get right with God! Instead, we do them in response to what God has done for us. United to Christ by faith, you and I have died to sin. Now, we must live out what we are in Christ.

골로새서 3:5-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개종된 모든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모든 죄들을 행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중 몇몇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떠나길 바라는 이런 죄들에 유혹받는 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죄들을 뿌리 뽑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서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주석가가 주목했듯이 이는 여러분의 성품이 자기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 necropolis (necropolis란 무덤, 죽음의 도시입니다)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 죽음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말할때도 사용됩니다. 그들은 또한 “살을 먹는 박테리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ecrosis를 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 단어들은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악한 본성의 욕망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The first four items in this list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re directly related to sexual sins. Here, *sexual immorality* ranges in meaning to include pornography,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dultery, prostitution and same sex unions. And that’s just what people don’t want to hear. Among the vocal minority there’s a push for gay marriage. Well, God’s Word doesn’t approve of that. No matter how you might twist the biblical language, all forms of sexual immorality are against the word of God. Before you accuse me of homophobia, note two things. One, I’m not afraid of gay people, for that’s what homophobia means. Secondly, if we really love gay people then we’ll point out that their behaviour is contrary to God’s word. Now, that’s hard for them, I’m sure. But far worse is an eternity separated from God. For, we read in Romans 1:32,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이 리스트중 첫번째 네가지 항목은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사욕) 직접적으로 성적 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음란이란 포르노그래피,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것, 간통, 매춘과 동성결합을 포함한 의미를 포괄합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하는 것들 이지요. 소수의 목소리로 동성 혼을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언어를 아무리 왜곡한다해도 모든 형태의 성적 음란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호모포비아 (동성애 공포증자)라고 비난하기 전에 두가지 점에 유념해 주십시오. 첫째는, 저는 호모포비아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저는 동성애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른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컨데,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겠지요. 그러나 더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영원한 분리입니다. 로마서 1:32절에서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The next words, *impurity, lust, evil desires*, are also related to sexual sins. *Evil desires*, however may refer to sinful desires in general. Even so, we’ve largely covered their meaning. And the final word in this first list, *greed*, refers to ‘covetousness’. As such, it covers the first four words in this list. *Greed* also points us back in time to the Ten Commandments. We read in Exodus 20:17, *You shall not covet...* That commandment serves as a summary of the preceding nine commandments in Exodus 20. In the same way, the words ‘*which is idolatry*’ can also refer to the list of sins here in Colossians 3:5. So, as Christians we’re to avoid these sexual sins because they’re the result of covetousness. And covetousness is a refusal to submit to the lordship of Christ.

Idolatry is idol worship. Anything that comes between God and you (or between God and me) is an idol. *And we will worship it.* So, here is the gospel corrective to sinful behaviour. Put it all to death.

But, you might say, ‘I don’t want to believe that. It’s not fair! I refuse to see how these commands are part of the gospel’. St. Augustine put it well for us, **If you believe what you like in the gospels, and reject what you don’t like, it’s not the gospel you believe but yourself.**

Christian, you cannot choose to accept some parts of the Bible and reject others. God’s word is our rule of faith and life. We stand under its authority, not over it. And that’s because it is God’s word to us. The Bible is to be our rule of faith and life. You and I cannot choose which parts of the Bible we like and which parts we don’t like.

다음 단어. 부정, 정욕, 악한 사욕 또한 성적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악한 사욕이란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미를 폭넓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탐심은 “탐욕”을 말합니다. 이 리스트중 첫번째 네 단어는 그것을 포괄합니다. 탐심은 또한 우리를 십계명의 시기를 다시 가르키게 합니다. 출애굽기 20:7, “탐내지 말지어다”. 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앞서나온 9개의 계명의 축약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골로새서 3:5절에서 죄의 목록을 열거해 놓았는데, 그것들은 즉 “우상숭배”라고 일컬어 질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들이 탐욕의 결과인 그 성적 죄들을 회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예수님의 주되심의 거부입니다.

우상숭배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저)사이에 있는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많은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죽이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명령들이 어떻게 복음의 일부분이 될수 있는지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잘 써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믿고,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이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성경의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부하는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생명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 아래 서있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 넘을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생명에 관한 우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좋아하지 않을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Consider once more Colossians 3:6. ***Because of these*** (the sins of 3:5), ***the wrath of God is coming***. Many people don’t like God’s anger against sin. They argue, ‘If God is a God of love, then He must accept us as we are.’ Rubbish! Listen to Romans 2:7, 8, ***To those who by persistence in doing good seek glory, honour and immortality, he will give eternal life. But for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who reject the truth and follow evil, there will be wrath and anger***. Romans 2 and Colossians 3 point us to the return of Christ. He alone can save us on that great and terrible day.

We find this again in 1 Thessalonians 1:9, 10, ***They*** (other believers) ***tell how you*** (Christians)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Jesus, who rescues us from the coming wrath***. It’s the Lord Jesus who saves us from God’s wrath.

골로새서 3:6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로 인하여 (3장5절의 죄들) 하나님의 진노가 올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로마서 2:7-8절은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과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기를 강조합니다. 홀로 그분만이 우리를 그 엄청난고 끔찍한 날에 구원하실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점을 데살로니가 전서 1:9-10절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교를 믿는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ut Paul hasn’t finished with us yet. He has more sinful behaviour to address. 3:8, ***But now you must rid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as these: anger, rage, malice, slander, and filthy language from your lips***. Note once more that this is a biblical command. If you call yourself a Christian then this is not an optional extra. It’s something that you and I must do.

The list in 3:5 referred to sensual desires. Now, 3:8 speaks of what comes out of our mouth. Again, these words stand against so much of life in our community today. Many books and movies are straight out pornography. And filthy language and blasphemy (using the Lord's name as a swear word) is far too common. The spoken language of the radio today is not much better.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아직 끝맺지 않습니다. 그는 3장 8절에서 더 많은 죄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그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이 성경적 명령임을 한번 더 주목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특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원가입니다. 3:5절에 열거된 것들은 육체적 감각의 욕망입니다. 이제 3:8절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역시 이 말들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 사회의 많은 삶에 대항하여 서 있습니다. 많은 책과 영화들은 그대로 포르노그라피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언어와 경거망동함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은 너무도 일반화 되었습니다. 요즘의 라디오의 언어들도 다름바 없습니다.

Anger and **rage** overlap in meaning. Rage, however, is more of a strong outburst of passion. Anger is like a volcano, hot with massive pressure building up inside. Rage is more like the volcano erupting. It destroys life around it, just as Mt. St. Helen's did when it exploded in 1980.

Yes, there are times when we get angry. But, we read in Ephesians 4:26, ***In your anger do not sin.*** And again, in Ephesians 4:32,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Paul writes in Colossians 3:13,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whatever grievances you may have against one another.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성냄과 노함에는 의미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함에는 열정의 강한 분출이 더해집니다. 성냄은 내부에서 축적되고 있는 거대한 압력을 가진 뜨거운 화산과 같은 것이고, 노함이란 그 화산이 분출된 것과 같은 더해진 것입니다. 1980년에 폭발했던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삶을 파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때는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32절에는 “서로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13절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썼습니다.

These are big issues for us this morning. Sexual sin is so important that the Bible speaks much about it. But this vice list here in 3:8 is equally important. And, it's most important for us in the church. We're all challenged to rid ourselves of evil, harsh words.

Anger, malice and slander destroy Christ's church. And it's the last word, slander that accuses us before God today. It's so easy to slander other people with what we say about them. And we slander them when we judge them without trying to understand them. And what's worse, we do it without first loving them. What do we learn when we hear someone slandering another? What we learn most is the bitterness of heart in the person who makes the accusation.

How can we avoid slandering other people? Colossians 3:8 tells us to get rid of such words and thoughts. In Philippians 2:3 we have another antidote.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이 말씀들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죄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절의 죄악의 행위들의 리스트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악하고 험악한 말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제거하는 데에 모두 힘써야 합니다. 화냄, 악의, 중상모략은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앞서 우리를 꾸짖는 것은 그 마지막 단어, 중상모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말한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모략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비방합니다. 더 악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지 않은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이를 모략하는것을 들을때 무엇을 배워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비난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쓴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피할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8절은

우리가 그러한 말들과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3절은 우리에게 또다른 처방책을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Why do we hold grudges and bear anger against other people? Why do we slander others? The answer is simple: Sin. In our sin we consider that we're better than other people. We're the ones who are worthy of praise. But that's not God's way. It's not the way of a Christian. And it's certainly not the way of God's church. To use the Apostle Paul's words, put these evil sinful desires to death. Get rid of all unwholesome talk. He sums it up well for us in Colossians 3:17,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If your life and mine is centred on Christ then our greatest desire is to honour Him in the way that we live. Kevin DeYoung asks: **What must we leave behind if we are to follow Christ?** The simplest answer is: Leave behind idolatry. That's the first of the Ten Commandments—***“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20:3) There are all sorts of gods: education, sport, sex, marriage, power, beauty, achievement. Whatever you give your whole life to, is your idol.

Consider **If only I had _____ then I would be happy.**
If only I had _____ I'd be worth something.
If only I had _____ I could truly live a fulfilled life. How did you fill in the blanks?

That's what you live for. It's what you worship. It may even be marriage, or your dream job, or to be better parents, better kids, or to be a better influence. Many of these are good, but they're not meant to be gods. Actually, there's one word that best fills in the blanks: **Christ.**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화를 지닙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모략합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사악한 죄성의 욕망을 죽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건전한 말들을 제거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서 3:17절에서 우리에게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그를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Kevin DeYoung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무엇을 저버려야겠습니까?”** 그 가장 간단한 답변은: 우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입니다 -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출애굽기 20:3). 여러가지 신들이 있지요: 교육, 스포츠, 성, 결혼, 권력, 미, 성취. 여러분이 여러분 삶 전체를 바치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내가 ()만 있다면, 행복할텐데..
만일 내가 ()만 있다면, 나는 가치있는 뭔가가 될텐데..
만일 내가 ()만 있다면, 참으로 충족된 삶을 살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결혼, 꿈에 그리던 직업, 혹은 더 나은 부모님, 더 나은 자녀, 아니면 더 나은 영향력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중 많은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그 괄호를 가장 잘 채워 줄 한 단어는 : **예수** 입니다.

We become just like what we worship. You've been made in the image of God. But, when you worship some thing or some person other than Him, you're an idol worshipper. You exchange the image of God for what you worship. And ultimately you worship yourself. It's your needs, your desires, your satisfaction that you seek. For you define yourself in terms of what you worship.

The Bible challenges us, doesn't it? Maybe there's someone here this morning whose life is reflected in the sins spoken about in Colossians 3. If that's you, then you're not condemned to continue in sin. You're not without hope. Your hope is Christ. It's i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And you can find real life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other words, admit that you're a sinner in need of Him. Then place your faith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for you.

Christ has paid the price for your sin, on the cross. 1 Peter 2:24,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Here is the beauty of the gospel. The Lord Jesus suffered the full force of God's wrath for you and me on the cross. United to Him we're free from that wrath to love and serve Him.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외에 다른 뭔가, 다른 사람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 우리 만족이니깐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렇죠? 아마도 골로새서 3장에 언급된 죄들로 인해 지금 삶을 돌아보는 누군가가 오늘 아침 여기 있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죄 안에서 반복되도록 심판받지 않았습시다. 여러분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입니다. 그 희망은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삶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필요로 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두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루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24절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상처로 인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압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Calvin Coolidge was known as the silent president of the US. He didn't say much. One day his wife asked him what the minister's sermon at church was about. He replied, 'Sin'. 'Well,' urged Mrs. Coolidge, 'what did he say about it?' 'He was against it,' said the President. You and I do well when we feel the say way.

The Apostle Paul reminds us that there is a cure, an antidote for self-centredness: Christ. And so we must conclude this morning with the Apostle Paul's words to us in Colossians 3:1-4,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²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³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⁴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What a glorious God we serve! What a glorious gospel God has given us! What a glorious Saviour we have! What a glorious future we have in Him! For, in Christ we're no longer dead, but truly alive. Amen

Calvin Coolidge는 미국의 조용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시다. 어느날 그의 아내가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관하여 물었습시다. 그는 “죄”라고 대답했습시다. 그의 아내가 “글쎄, 그것에 관해 뭐라고 하셨는데요?”라고 재촉하자, 그는 “그가 그것에 맞서셨다”라고 했습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할수 있다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주의의 치료제이자 해독제인: 예수님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아침에 골로새서 3:1-4절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구세주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안에 있는 우리는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것입니다. 아멘